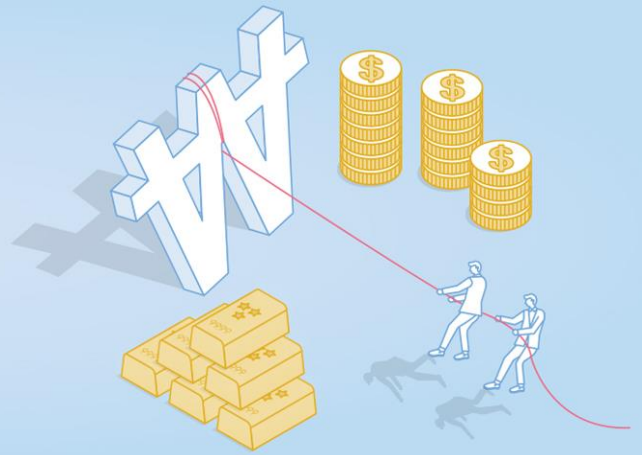


Global Economy

미국 고용, 나아지지 않는 노동 공급



Economist 이경훈 02)368-6138_jhoonlee@eugenefn.com

임금 상승률 둔화 추세는 유효, 그러나 내년 말 금리 인하 기대는 아직 일러

미국 11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전월비 +26.3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 +20.0만 명 증가를 상회했다. 전월 증가 폭도 28.4만 명으로 상향되었다(+2.3만). 10월 +0.2%p 상승했던 실업률은 3.7%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고용보고서에서 중요한 점은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및 임금 상승세 확대가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11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62.1%로 -0.1%p 하락해, 8월 62.4%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시간당 임금도 전월비 +0.6% 상승해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전년동월비로도 +5.1% 상승률을 기록해 10월 +4.9%에서 한 달 만에 5%대로 반등했다.

다만 임금 상승세 둔화 추세 자체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11월 산업별 임금 상승률을 보면 운수창고(+2.5%), 소매업(+0.9%) 등의 상승률이 확대되었는데, 최근 두 산업의 취업자는 3-4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Tech 직종 비중이 높은 정보 서비스(+2.5%) 산업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Tech 산업의 감원 계획이 증가하고 있다. Tech 직종 비중이 높은 다른 산업인 전문/비즈니스 산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었다(10월 +2.6만 → 11월 +0.6만). 구인 수요도 더디지만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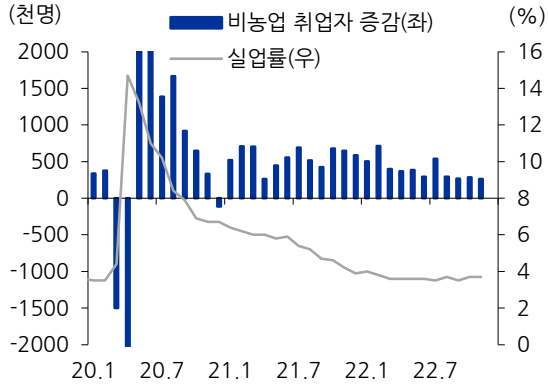
이날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장 초반 급등했던 금리와 달러가 상승폭을 대부분 되돌린 것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했을 수 있다. 지난 11/30 일 파월 의장은 일단 상품과 주택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인정했으며,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발언했다.

그러나 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서비스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구조적 노동 공급 감소로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침체의 깊이는 알아도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더디게 둔화될 수 있다. 지난 브루킹스 연설에서의 파월 의장의 스탠스를 감안하면 최종금리가 현재 예상(5.0~5.25%) 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낮으나, 최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내년 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Global Economy Check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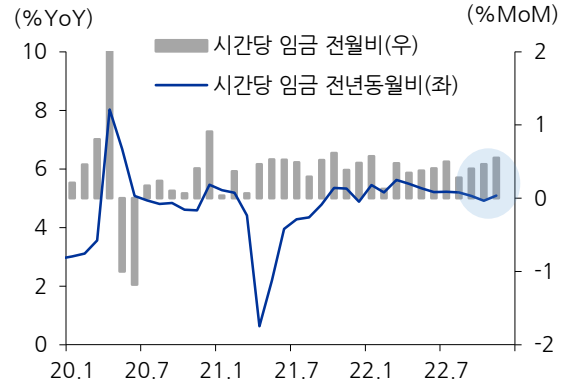
- 11월 미국 비농업 취업자는 +26.3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 상회. 실업률은 3.7%로 전월 수준을 유지
- 경제활동 참가율이 추가하락하면서 임금 상승률도 +0.6%MoM, +5.1%YoY로 가팔라졌음. 그러나 소매업, 정보 서비스업 등 임금 상승을 주도한 산업의 고용이 둔화되고 있음. 임금 상승률 둔화 추세는 유효
- 그러나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내년 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아직 시기상조

도표1. 11월 취업자 +26.3만 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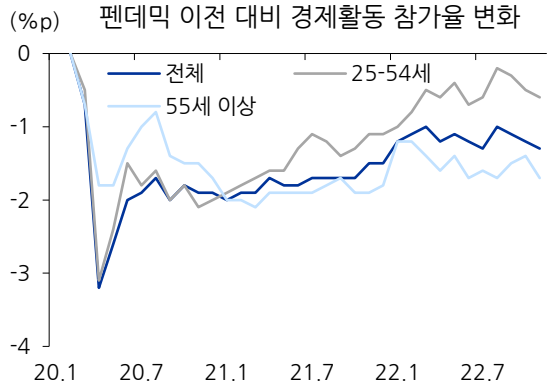
자료: CEC, 유진투자증권

도표2. 11월 임금 상승률 +5.1%yoy로 재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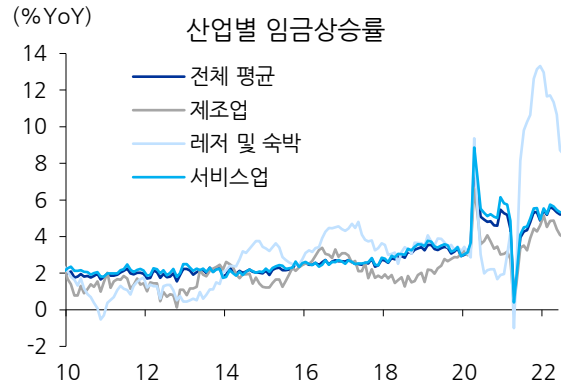
자료: CEC, 유진투자증권

도표3.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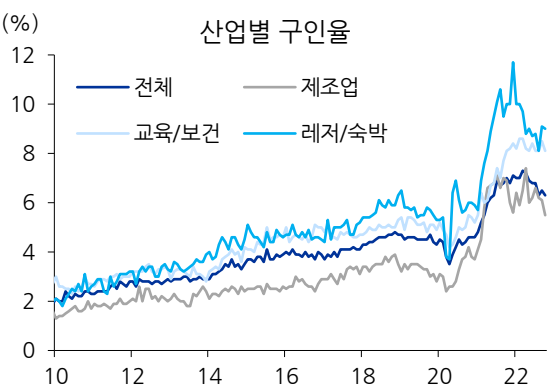
자료: CEC, 유진투자증권

도표4. 레저 산업 임금상승률 전체 산업 상회



자료: CEC, 유진투자증권

도표5. 보건, 레저 산업 구인 수요 여전히 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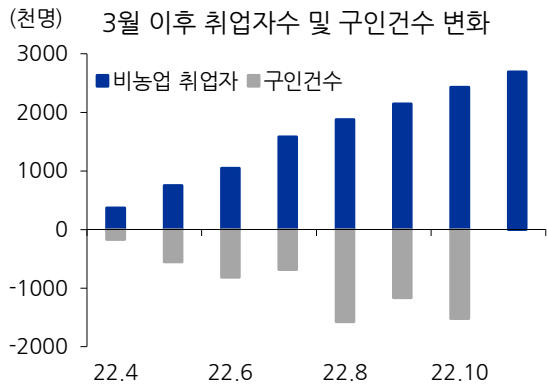
자료: CEC, 유진투자증권

도표6. 서비스업 임금 및 서비스 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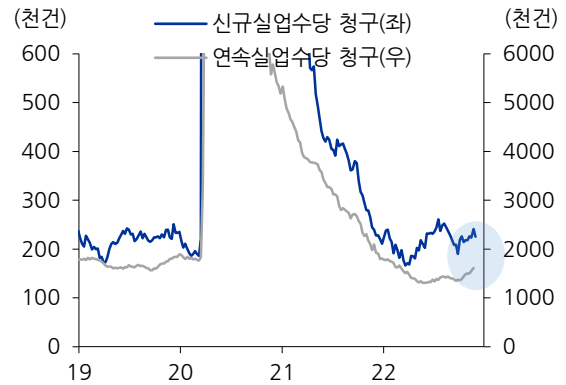
자료: CEC, 유진투자증권

도표 7. 구인건수 감소보다 취업자 증가 더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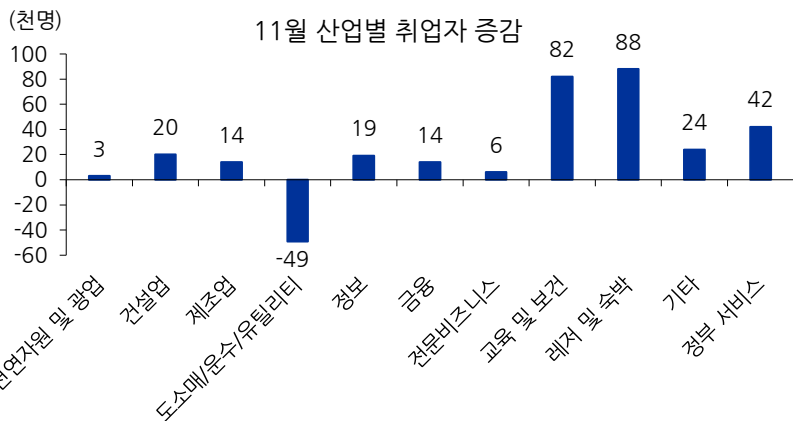
자료: CEC, 유진투자증권

도표 8.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다시 상승 중



자료: CEC, 유진투자증권

도표 9. 11월 교육/보건, 레저/숙박 산업 고용 증가 주도



자료: CEC,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조건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조건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0% 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50% 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 이상 ~ +15% 미만	6%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 미만	0%

(2022.9.30 기준)